



청소년운동 울타리 세우기 1차 워크숍

---

고립되지 않고 잘 싸우기 위한  
대사회운동 대응력 강화 워크숍

일 시 : 2017. 5. 13(토)

장 소 : 카페 봄봄

## 〈워크숍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5:00	<p><b>[1부] 청소년운동 경험 돌아보기</b></p> <p>¶ 사회: 공현 (활기)</p> <p>¶ 발표</p> <p>1. [퀴어문화축제] 사례 발표 : 주리 (대리인)</p> <p>2. [백남기 농성장] 사례 발표 : 한송이 (청소년녹색당)</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발표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건의 간략 개요와 쟁점(무엇이 문제였나?   단체/개인은 어떻게 대응했나?   어떤 반응이나 결과를 얻었나?)</li> <li>2) 어떤 말이나 대응이 설득력을 가졌는가? / 어떤 말이나 대응이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가져왔는가?</li> <li>3) 어떤 생각이나 반응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웠는가?</li> <li>4) 직접 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다른 단체/활동가 등에게 실망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지?</li> <li>5) 다시 돌아간다면 이걸 더 해 보고 싶다 or 지금 이걸 더 해 보고 싶다</li> </ol> </div>	<p>각 발표당 20분 발제 10분 질의응답</p>
15:00-15:10	쉬는 시간	
15:10-16:20	<p><b>[2부] 청소년운동의 대응력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b></p> <p>¶ 사회: 경내_개굴 (활기)</p> <p>¶ 생각 나누기 (포스트잇)</p> <p>“대응력 강화를 위해 이런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p> <p>“이렇게 대응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p> <p>¶ 모듈별 쟁점토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예) 각 대응 단계마다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쟁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li> <li>• 어떻게 말하면 발언력을 높일 수 있는가</li> <li>• 개인의 현장 대응 vs. 사후 조직적 대응</li> <li>• 상대의 약한 고리는 무엇이고 어떤 대응이 효과적인가</li> </ul> </div>	<p>포스트잇 토론 20분 모듈토론 50분</p>
16:20-16:30	쉬는 시간	
16:30-17:20	¶ 발표 및 종합 토론	

[발표 1]

## 퀴어문화축제 애프터 파티 참여 문제

- 주리

### 1) 사건의 간략 개요와 쟁점(무엇이 문제였나? | 단체/개인은 어떻게 대응했나? | 어떤 반응이나 결과를 얻었나?)

2012년 :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소액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퀴어문화축제 부대행사 공모사업을 열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 이 공모사업에 '나이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애프터파티' 행사로 '대놓고야반도주'라는 파티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전까지 퀴어문화축제의 애프터파티는 비청소년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담당자는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 음주와 흡연이 없고 10시 이전에 마치는 행사로 진행해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놓고야반도주' 홍보물 초안에 이제껏 청소년들이 애프터파티에서 배제되어왔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배제'라는 말을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와서 수정하기도 했다. 해당 행사를 위해 대관하기로 한 장소의 업체 측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간에 이와 관련한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행사를 준비하던 당시에는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았(못했다). 몇 달 정도 후 다른 성소수자 행사(캠프)에서 비청소년은 음주할 수 있는 방으로, 청소년은 음주할 수 없는 방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라는 홍보물이 나왔을 때 이에 문제제기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퀴어문화축제의 공식 애프터파티가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제, '대놓고야반도주'를 준비하면서 겪은 청소년 음주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우려들을 언급하였다. 이 편지를 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퀴어문화축제 측에서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공식 애프터파티에서는 술을 팔고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청소년의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 2013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기 전 5월에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과 몇몇 단체들이 퀴어문화축제에 '제안서'를 발송했다. 제안서 내용은 청소년을 배제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방식의 애프터파티를 고민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답장은 퀴어문화축제가 끝난 6월 이후에 왔는데, 고민은 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러한 제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용이었다.

+ 위 제안서를 발송한 이후 동인련(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서 주도하여 퀴어문화축제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퀴어문화축제 측 담당자로 온 사람들은 파티의 청소년 참여 문제는 파티를 준비하는 단위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본인들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3년 : 퀴어문화축제에서 2013년 애프터파티는 비청소년 파티 따로, 청소년 파티 따로 공식 행사로 개최

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과 동인련 청소년팀이 퀴어문화축제 청소년파티 준비 담당자와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퀴어문화축제 측에서는 10시 이전 종료, 음주 및 흡연 없음을 전제로 하는 파티이며 청소년 파티를 따로 분리해서 여는 것은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을 모집할 때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서 활동하는 몇몇이 들어가기로 했다. 기획단에 참여한다고 해서 파티와 청소년 참여 관련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도 내부에 있었지만 들어가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단체 입장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입장은 나이에 따라 따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팔고 클럽에서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면 술 없이 장소도 클럽이 아닌 다른 공간을 빌려서 하더라도 나이로 나누지 않고 파티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퀴어문화축제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외중에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파티팀’ 톡방에서 팀장의 문제적인 언행이 있었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팀장이 왜 저번 회의에 오지 않았냐는 말을 반말로 해서 반말에 문제제기 했더니 ‘내가 아버지뻘인데’ 등의 말을 하며 대응했던 것이다. 청소년 참여에 대해 퀴어문화축제 대다수와 다른 의견을 내왔던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구성원들이 이미 미움을 사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팀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퀴어문화축제 전체 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반말을 들었던 당사자가 본인이 전체 회의에 가서 스스로 의견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대리인을 참석하게 해야 했고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무슨 대단한 사안이라고 대리인을 세우냐는 의견이 팽배했다. 당일 전체 회의에서는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제대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 대리인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구성원들은 인권교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사자는 전체회의가 이루어지던 도중 감정적으로 트위터에 이 사안과 관련한 글을 남기고 퀴어문화축제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홈페이지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다.

이후 아무런 대책도 사과도 나오지 않아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서 이 사안을 알리는 글을 써서 연서명을 받아 발표했다. 이 글을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구성원이면서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퀴어문화축제 인트라넷에 올렸더니 ‘(반말로) 00야 이런 거 올려주지 마라’ ‘의무를 다 하고 권리를 주장하세요’ 등의 댓글들이 다수 달렸고 대부분 그런 내용의 당사자를 욕하는 댓글들이었다. SNS로도 비슷한 논조의 글들을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사람들이 게시하기 시작했다.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에 평등한 활동을 위한 약속을 다음번에는 만들어보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 2) 어떤 말이나 대응이 설득력을 가졌는가? / 어떤 말이나 대응이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가져왔는가?

퀴어문화축제 준비 단위 내부에서는 설득력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 여전히 퀴어문화축제는 청소년을 배제하고 애프터파티를 진행하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의 다른 활동가들에게는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 활동가에 대한 동등한 대우 문제에 대해 일부 설득력을 가졌던 것 같다.

아쉬운 부분은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전부 운동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문제제기

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주변에서 연서명 받아 글 발표하는 방식이나 당사자가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냥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의견 제시였고 이 문제를 같이 책임지고 문제제기를 같이, 더 낫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방어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대리인 말고 당사자가 회의에 직접 가서 얘기했으면 ‘당사자가 소통을 안 한다’는 식의 비난만 받고 문제 자체는 논의하지 못한 상황이 좀 더 해결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 입장에선 내가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다.

2012년 대농고야반도주 준비하던 당시에 좀 더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증거를 남겼어야 했다. 그리고 2013년 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댓글들을 캡처해서 공유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 3) 어떤 생각이나 반응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웠는가?

문제의 본질은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에 얼마만큼 중요성을 부여하는가이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비청소년 파티, 청소년 파티로 분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퀴어문화축제 쪽에서는 자꾸 ‘우리가 술 팔아서 처벌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식으로 논의를 몰고 갔고 어느 정도는 의도적인 논점 흐리기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끈대로 낙인찍는다’ 식의 언동들도 어이가 없었다.

### 4) 직접 당사자가 아닌 주변의 다른 단체/활동가 등에게 실망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지?

기존 청소년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제기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주기를 바랐다. 무리한 바람이었던 것 같다.

청소년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면서도 퀴어문화축제 쪽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영향으로 침묵하던 사람들이 좀 있었다.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 5) 다시 돌아간다면 이걸 더 해 보고 싶다. / 또는 지금 이걸 더 해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대신 퀴어문화축제 가고 싶지도 않고 이 문제를 더 붙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아쉬운 부분들은 2번에 썼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세련되게 문제제기를 하고 지지를 끌어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발표 2]

## 백남기 농성장 내 청소년혐오 사건 발제

- 한송이

### 1. 사건 개요와 쟁점

#### 1.1 개요

백남기 농성장 내에서, 한송이, 서은 활동가는 농성장 안에서 머물면서,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흡연공간이 아닌, 장례식장 후문 창경궁로 도보에서 피웠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거기서 많이 피우고 있었고요, 처음 한두 번은 다들 경황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한 세 번째 쯤에서, 저(한송이) 혼자서 담배를 피울 때는 한두 명 꼴로 저에게 ‘너 몇 살이냐’ ‘어려 보이는데 민증을 보여 달라’ 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고, 저는 시비가 붙기 싫어 그냥 담배를 끄고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 이후로도 담배를 피웠었고, 그럴 때마다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던 저희 둘끼리만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고, 그때쯤에는 흡연공간에서 담배를 피웠었는데요. 이제 저희도 시비가 걸려도 우리가 필요 없다는 마음으로, 담배를 피울 때마다 지적하는 이가 있어도 계속 저희도 따지고 들고, 민증을 요구하면 ‘청소년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니 바로 반말을 하며 저희에게 담배를 끄라고 소리를 쳤었고, 그걸 본 주위 사람들이 저희 둘에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였습니다. 경찰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자, 농성장 내 분위기도 저희에게 적대적으로 흘러갔었고 녹색당 뒷담도 많이 흘러왔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대자보 혹은 투본 측에 문제제기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 할 것을 결단하였고, 저가 녹색당 그룹에, 농성장 내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경찰을 불렀다. 와 같은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 글이 저희 생각보다 많이 퍼지게 되어 꽤 파급력이 커져, 녹색당원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가들을 지지하고, 흡연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조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녹색당 차원의 대자보 연대에도 232명 정도가 연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심정적 상황과 탈가정 상태였던 활동가들의 역량과 사건 대응으로 인해 대자보 발표 등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요즘것들’과 인터뷰한 것도 꽤 널리 퍼졌었습니다. 녹색당 전국사무처에서도 이후 저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직팀장이나 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논쟁이 생겨도 저희를 ‘옹호’해주는 인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옹호하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문제제기로 인해 이른바 ‘보수언론’에게 욕먹을 견덕지가 될까봐 걱정하고 ‘저기 가서 피워라’ ‘조용히 좀 해라’ ‘어른들이 이야기 할게’ 같은 분위기로 흘러갔었습니다. 결국 저희도 백남기 투본에 농성장 내 차별적 행동들에 대해 제지를 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상진 투본 팀장이 이른바 “꺼” 사건 때 저희에게 폭력을 가했던 이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농성장 밖으로 내쫓겠다고 선언한 이후

로, 잠잠해졌었습니다.

이후 더불어 투본은,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여부, 나이에 의한 폭력과 차별을 하지 말 것을 농성장 내부에 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머저장소, 나무위키, 오유, 일베,조선일보 같은 사이트에 해당 사건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를 보고 청소년녹색당 페이지나 녹색당 그룹 해당 글에 청소년활동가들을 양아치라고 비난하고 인신적인 공격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녹색당 그룹 내에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매일 이어졌었고, 전국사무처에서는 서은, 한송이 활동가와 녹색당 전국운영위원장단과의 미팅 자리를 만들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고, 저희가 요청한 사안은 ‘녹색당의 공식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 이였습니다. 이후 녹색당은, <청소년권리에 대한 위원장단의 생각입니다> 라는 입장문을 통해, 청소년녹색당 활동가들의 행동이, 청소년녹색당 규약)에 근거한 정당한 활동임을 선언하고 청소년녹색당에 가해지는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탈당한 당원, 입당한 당원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결국 유아무야,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 1.2 쟁점들

### - 무엇이 문제였는가

거의 당사자들만이 싸워야 했었고, 비청소년인 앨라이가 와서 같이 싸워준다 할지라도, 농성장 내 직접적 피해는 당사자들이 전부 져야할 뉘였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린치 또한 막심했고, 피해당사자들의 신상정보는 거의 무방비 수준으로 퍼졌었습니다.

### - 단체와 개인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단체 수준의 대응은 녹색당 운영위원장단 입장문과, 전국사무처에서 사무처 활동가들을 청소년 활동가들과 사실상 ‘보호’해주고자 파견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교적, 녹색당과 당사자들간의 소통은 잘 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녹색당은 당시 운영위가 사실상 파토된 상황에서, 어떠한 의결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청소년녹색당 페이스북 페이지 상에 올라오는 혐오발언과 린치에 있어 사무국 활동가/일부 운영위원들이 대응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대응이라기보다는 키보드 배틀 정도의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적었습니다. 대자보를 붙일까도 고민했었지만, 탈가정 상태이고 청소년인 상황에서 선부른 행동은 위험을 낼 수 있었고, 외부와의 연대를 구축하고 대자보든 뭐든 공동행동을 해 볼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녹색당 그룹에 상황을 공유한 것이었고, 그 후 ‘요즘것들’ 팀에서

#### 1) 청소년녹색당의 규약 제 6조(의무)

- ①청소년인권에 대해 공부하며,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할 의무
- ②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동할 의무
- ③나이에 따른 차별에 지양할 의무
- ④청소년녹색당이 선언하는 가치를 지향할 의무

연락이 와 인터뷰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실, 서온과 한송이 둘 다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확장될지, 그리고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했다가보다는, 대응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사건이 커졌던 것이고, 결정을 오랜 시간동안 숙고하여 할 수 없었던 여건상, 너무나 결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어떤 결과와 반응을 얻었는가

극과 극으로 양분되어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혐오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나, ‘양아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흡연에 있어, 숨기지도 않고, 오히려 청소년 흡연을 지적하는 것을 지적한 사례가 많이 없었기에 더 많은 논쟁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명확한 계획을 잡고 진행된 건이 아니기에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다기에는 애매하지만, 당장 녹색당 안에서는 술을 마시는 뒤풀이, 담배에 있어 청소년들이 배제되지는 않게 되었고, 녹색당 내의 청소년 당원들이 청소년의제에 관련하여 당원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2. 어떤 대응이 설득력을 가졌는가? 혹은 역효과를 낳았는가

주로, 설득의 대상이 ‘운동권’이다 보니 ‘청소년도 투쟁의 동지로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옳다’ 라는 말로 설득을 했었고,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외 세력들에게는 이 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빨갱이에 물들어서 벌써부터 힙스터질 하고 다닌다’ 와 같은 대답들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대응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애들 말장난’으로 치부됐던 것이, 그래도 언론이라는 권위를 업게 되자 ‘애네들만이 하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조류가 퍼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활동가들의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 3. 어떤 생각이나 반응이 대응하기 어려웠는가

‘법’을 따지는 부류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에 맞서는 논리도 있었기는 합니다만, 법이라는 권위를 가져온 순간부터 자신들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가장 맹신력 있는 법이라는 규칙을 통해 이야기 하는 ‘일반인’이며, 당신들은 법이나 어기는 빨갱이 범죄자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을 부른 경우도 있었지만, 경찰이 역으로 범주가 아니라며 물러갔기에 사실 어떠한 처벌이 뒤따르는 범죄인 것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 4. 주변 다른 단체나 활동가들에게 실망했던 점

청소년녹색당 운영위원들이 가장 실망스러웠었습니다. 세간이 청소년녹색당을 집중하고 있는데도 정작 운영 위원이라는 작자들은 회의는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사건 대응에 있어, 소속 단체의 활동가들과의 소통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국 대자보 대응에 있어, 216명의 사람만 모아둔 채 청소년녹색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조직이 성장할 기회는 날아가버렸습니다.

#### 5. 다시 돌아간다면 이걸 더 해보고 싶다/지금 이걸 더 해보고 싶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의 비범죄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는 모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백남기 농성장에 참여한 시민/활동가들끼리 청소년 인권과 흡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소통의 장이 없다보니, 농성장 내 폭력도 심화되고, 사건의 결말도 유야무야 된 것 같았습니다.

